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중 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고난주간 부흥사경회 내일부터 시작

3월 24일(월) 저녁~26일(수) 저녁
강사에 총회장 김준규 목사(청주중앙교회 담임목사)
3월 28일(금)은 전교인 금식일로 정해



교회는 97년
도 고난주
간을 맞으며 교
인들의 영적
각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
을 다짐하기 위
하여 고난주간에
부흥사경회를 실시
하기로 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예수를 바라
보자'라는 주제가 말하듯이 고난주간을
맞으며 우리를 위해 고초를 당하셔서 우
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
라고 있다.

강사는 현 총회장이며 청주중앙교
회 담임목사인 김준규 목사(사진)이다.

부흥사경회는 3월 24일(월) 저녁부
터 시작하여 26일(수) 저녁까지 진행되
는데 기간 중 매일 새벽(오전 5시), 낮
(오전 10시 30분), 저녁(오후 7시 30분)
세 차례 모이게 되며 또 매 집회 30분 전
에 모여 찬양을 하게 된다.

첫째날 저녁 집회는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사회, 김재명 장로의 기도, 할렐
루야찬양대의 찬양, 강사 김준규 목사가
'종교적 경험의 비결'(눅 5:1-7)이란 제

목으로 설교하게 된다.

둘째날 저녁 집회는 이종대 목사의
사회, 손동운 장로의 기도, 가브리엘찬
양대의 찬양, 강사 김준규 목사가 '삶의
새로운 시작'(창 12:1-4)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게 된다.

셋째날 저녁 집회는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사회, 하대선 장로의 기도, 아멘,
실로암찬양대의 찬양, 강사 김준규 목사
가 '국가와 역사적 심판'(단 2:36-45)이
란 제목으로 설교하게 된다.

낮 성경공부 시간에는 성도의 고난
을 주제로 한 베드로전서를 공부하게 된
다.

또한 금주 금요일(3월 28일)은 예수
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전교
인이 하루 금식하는 날로 정했다.

이처럼 고난주간에 열리는 부흥사
경회에 전 가족들과 주위의 사람들과 함
께 참석하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
난에 참여한다면 큰 영적 유익이 있을
것이다.

충현소석장학회 후원의 밤 열려

충현소석장학회 후원의 밤 행사가
지난 3월 13일(목) 오후 6시 30분부터
만나홀에서 열렸다. 당회서기 김은호 장
로의 사회로 열린 이날 후원의 밤 행사
는 도서장학회 회장 김방진 장로의 기
도, 윤영탁 목사의 설교, 루디아중창단
의 특선,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김방진 장로의 충현소
석장학회 소개 및 후원회 가입 안내가
있었으며 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김방진 장로는 운영계획안을 밝히
면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장
학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장기적
으로는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장학
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3억 정도의 장학
금을 신학원 및 대학생 100명, 성적 우
수 대학생 5명, 해외 유학생 3명, 중고등

학생 50명, 교역자 및 직원 자녀 등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30억원의 기금 마련을 위해 특지가
들과 교회 경상비의 도움을 받기로 하
였지만 중요한 것은 전 교인이 참여한
다는 점이다. 많은 액수가 아니더라도
전 교인이 '나도 천국일꾼을 키우는 데
동참한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자는 것
이다. 따라서 도서장학회에서는 장학회
비 봉투를 전 교인이 갖고 매달 일정액
씩 회비를 내도록 하여 전 교인의 참여
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 교회의 표어와도 같이 되어 있
는 '천국일꾼을 키우자'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된다면
좋을 것이다.

지난 주일 공동의회에서
장로 6명, 안수집사 7명, 권사 50명 피택

교회는 지난 주일(3월 16일) 4부에
배 후 공동의회를 열어 제30대 장로, 제
11대 안수집사, 제39대 권사를 뽑는 투
표를 실시하여 장로 6명, 안수집사 7명,
권사 50명을 선출했다.

이번 투표의 총 유효투표수는 3,815
표였다. 피택자들은 4월 6일부터 6개
월간 성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장로는 노회에서 주관하는 장
로고시에, 안수집사와 권사는 당회에서
주관하는 고시와 면접을 통과한 후 장
립 및 취임식을 갖게 된다.

· 피택장로(사진, 나이순)

· 피택안수집사(나이순)
김용도 표원식 이지은 김연근 박태진
조중광 정선현

· 피택권사(가나다순)
강순자 강옥자 강호임 고명진 고춘자
구옥자 구정희 권영교 권종순 금호순
김계수 김계희 김순은 김연태 김종순
노순옥 도성희 마경자 박정숙 변금순
안금자 유호순 윤경춘 윤재선 이강자
이계문 이길순 이남숙 이복희 이상금
이상희 이수자 이오목 이음전 이정애
이정애 이진모 이해자 전정희 전현신
정문대 정옥남 정옥영 정은숙 지인숙
채혜선 최전화 한명희 한순희 홍기완



한송규



임기세



김준권



김영수



정홍식



김환기

오늘 4부예배 후
제직회

오늘 4부예배 후 본당에서 제직회
로 모입니다. 제직들은 전원 참석
하여 제직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왕의 결혼

(시편 45:1-9)

시편 45편은 고라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 결혼할 때 그 결혼을 축하하며 지은 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력있는 사람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쓰는 간사한 시가 아니며 일시적인 감정으로 쓰는 감정적 시도 아니고 마음의 중심에 감격이 넘쳐서 나오는 찬양을 기록해 놓은 시입니다.

또한 본 시편은 성도에게 특별히 이상적인 남편과 이상적인 아내에 대한 교훈을 주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1. 신랑의 자격이 어떠합니까(45:1-7)

(1) 말에 은혜와 지혜가 넘칩니다

본 시편의 기자는 솔로몬 왕이 남자들의 남자로서 신랑의 자격이 충분하고 신부 되는 여자 또한 너무나 훌륭하여 결혼식을 보며 축하할 마음이 샘솟듯합니다. 왕은 모든 인생보다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얼굴이 잘 생겨서가 아니고 그 인격과 덕행이 겉으로 나타나서 얼굴보다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솔로몬 왕은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꽂차 있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으므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롭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여 희생하고 봉사할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공의를 행하고 공평을 주장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갈 길을 못찾는 자에게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외식하고 속이려는 자에게는 칼날과 같은 심판이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의 남편 되시는 분들, 혹은 앞으로 결혼할 총각들의 입술에 은혜로운 말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저주가 없고 언제나 축복의 말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와 같이 솔로몬 왕은 얼굴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입술의 말이 은혜와 지혜로 꽂차 있기 때문에 신랑으로서의 자격을 가집니다.

(2) 영웅의 위엄을 갖추었습니다

'능한 자여'는 '영웅이여'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겉으로 볼 때는 부드러워 보입니다. 온유합니다. 그러나 허리에는 칼을 찻습니다. 허리에 칼을 찻다는 말은 언제나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존경하는 사람이 많지만 자연히 원수도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남편될 사람, 지도자가 될 사람은 편안한 때에 훈련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악한 자들이 언

제든지 덤빌 것을 생각하여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만나도 준비만 잘되어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3) 진리와 온유와 공의가 가득합니다

솔로몬은 겉사람만이 칼을 차고 위엄있게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속사람도 다음의 세 가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진리가 가득합니다. 솔로몬 왕의 인격에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가득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가득합니다. 또 누구에게나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남자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진리가 가득하여야 남편의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 온유합니다. 사람에게 지혜가 많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마음이 온유합니다. 온유란 아무리 못난 사람이나 범칙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만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품어 주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온유한지 다음과 같은 예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솔로몬 왕에게 창기 두 사람이 청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이 창기 두 사람의 재판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간단히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대통령을 향해서 창기 노릇 하는 두 여자가 재판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떠했겠습니까. 재판은 커녕 대통령 면회조차 꿈도 못꿀 일입니다. 그런데 창기가 자기들의 소원을 왕에게 아뢴다고 할 때에 불러 오라고 했으니 솔로몬 왕의 마음이 얼마나 온유한지.

셋째, 공평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솔로몬 왕은 재판을 공의롭게 합니다. 두 창기는 몇 날을 사이에 두고 각각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아기를 깔아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놀라고 슬퍼했었지만 얼른 다른 창기의 아기를 생각하고는 죽은 자기의 아기와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그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기가 아무리 보아도 자기가 낳은 아기가 아닙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창기 사이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마침내 솔로몬 왕 앞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솔로몬 왕은 공평한 재판을 합니다. "분명히 네 아들인가" "네" 두 여자가 자기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칼을 가져와서 이 아기를 절반으로 잘라 나누어 가져라" 하고 칼을 휘둘러 댁니다. 이것을 본 진짜 아기 엄마는 가슴에 불이 끓어 올라 말합니다. "대왕님, 내 자식을 죽이지 말아 주세요" 모성애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죽은 아기의 엄마는 "대왕님, 둘로 나누어 갈라 주세

솔로몬 왕은 그 마음 속에 진리가 가득하고 온유가 가득하고 공평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숨처럼 부드러운 왕이지만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는 법이 없고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끌려가는 법이 없고 아첨하는 간신에게 이용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남편들도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요"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왕은 공의로운 재판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 왕은 그 마음 속에 진리가 가득하고 온유가 가득하고 공평이 가득했습니다. 절대로 불의한 자와는 타협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아도 숨처럼 부드러운 왕이지만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는 법이 없고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끌려가는 법이 없고 아첨하는 간신에게 이용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의 남편들도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4) 진정한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솔로몬 왕에 대한 칭찬과 축하뿐만 아니라 진정한 신랑은 예수님이신 것을 묵시로 받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시고 온유하시며 공의로우시고 영원히 왕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며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룩한 희생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마음과 말씀과 모든 행위와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다음에 뛰어난 이름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히 우주를 다스리시는 천국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2. 왕이 받는 대접은 최상의 것입니다(45:8-9)

솔로몬 왕은 입은 웃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웃에는 물약을 발랐습니다. 물약이란 썩지 않는 방부제로 아라비아에서 나오는 물약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입니다. 침향과 육계는 좋은 향유로서 인도에서 나옵니다. 또한 솔로몬 왕이 쓰는 일상 용품은 지상의 극상품이며 듣는 음악도 극상의 음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역시 금 중에 가장 좋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사

랑을 받으며 만민의 존경을 받는 자리, 왕의 우편에 세워졌습니다.

이상적인 남편은 물질의 복도 넘치려니와 훌륭한 아내의 내조도 받으며 자손들의 효도도 받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의 남편이나 앞으로 결혼할 총각들은 특별히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 죽도록 복종하는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진리가 가득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꽂차 있어 그 입에는 은혜로운 말, 축복하는 말, 갈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인도하는 말, 울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악마와 싸울 준비를 항상 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생하여 십자가에 죽을 준비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할 때에 진짜 남편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한 걸음 나아가 남자로써 여자를 부려먹을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평한 처리를 하면서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격 있는 남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본받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말이 아름다워지고 준비를 착실히 하며 책임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믿음을 지키고 사람 앞에는 신용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귀한 아내를 맞게 되고 귀한 자손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성도가 되어 귀한 명예와 칭찬과 권위를 누리며 땅 위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평안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고난주간의 말씀을 따라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한 근 수
(목사, 16교구, 출판국 지도)

다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주간과 부활의 아침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주간의 과정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을 맞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큰 은혜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3월 23일):

승리의 입성 : 누가복음 19:28-44

“...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19:38)

▶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비록 그 모습은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고난을 지나 참된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월요일(3월 24일):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 누가복음 20:20-21:4

“...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20:44)

▶ 성전에서 사람들의 질문에 따른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서 그들이 더 물을 수 없는 지혜의 말씀들이었습니다.

화요일(3월 25일):

무화과나무의 비유 : 누가복음 21:29-38

“...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21:27)

▶ 세상 끝날은 징조가 있을 것이나 그 날은 도적같이 임하여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므로 모든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요일(3월 26일):

유다의 배반 : 누가복음 22:1-6

“...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22:6)

▶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공모하였고, 열두 제자 중의 하나인 유다는 사단에 사로 잡혀서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 줄 기회를 찾는 배신을 하게 됩니다.

목요일(3월 27일):

최후의 만찬 : 누가복음 22:7-23

“... 또 떡을 가져 사래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22:19-20)

▶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최후의 만찬은 주님의 죽음을 친히 기념한 새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였으며, 따라서 주님의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며 성만찬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금요일(3월 28일):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 누가복음 23:26-49

“...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니라”(23:46)

▶ 예수님은 다른 두 행악자와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토요일(3월 29일):

동역자가 될 것이다. 만일 그녀가 나를 참수하려 한다면 세례 요한도 동일한 형벌을 당했음을 기억할 것이다. 만일 그녀가 나의 재산을 가져가려 한다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내가 적신으로 갈 것이다.”

이 얼마나 담대하고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걸어가시며 온갖 모욕과 비방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당하신 고난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하염없이 우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돌아 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투옥, 멸시와 조롱의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 곳곳에서 또한 세계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 누가복음 23:50-56

“...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23:55-56)

▶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죽음이었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서곡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음날의 부활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 주일(3월 30일):

부활하신 예수님 : 누가복음 24:1-12

“...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시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24:5-6)

▶ 무덤 속에 묻히셨던 예수님은 약속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승리에 대한 보장이었으며, 우리 모두에게 임할 부활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가 감당합시다

윤 종 일
(목사, 충현기도원 지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피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말하기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인생에는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84장 6절에는 인생이 걷는 길을 “눈물골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난을 당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잘못과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난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AD 398년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되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12년 동안 설교한 크리소스토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여자 황제가 나를 추방하기로 결심했다면 그녀로 하여금 나를 추방하게 하라. 땅은 여호와와 것이 고 거기에 충만한 것도 그러하다. 만일 그녀가 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한다면 그녀로 하여금 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라. 나는 요나를 기억할 것이다. 만일 그녀가 나를 불타는 용광로에 던지려고 한다면 세 소년들이 나의 앞서 그곳에 있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만일 그녀가 나를 맹수들에게 던지려 한다면 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만일 그녀가 나를 돌로 치려고 정죄한다면 나는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반의

곳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종들이 많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고난을 당하려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주님 예수 만나는 그 날에 수고했다고 하시며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아직도 거절하며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 나라의 교회는 일제 침략과 6·25의 큰 고난 속에서 눈물로, 기도로 고난을 이겨내고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지금 교회의 그 저력은, 교회의 그 눈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위해, 구원 받아야 할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토막소식

▶ 영아부에서는 지난 20일(목) 오후 6시에 청계산기도원에서 교사 야외예배를 드렸다. 교사들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교사로서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다짐하였다.

▶ 초등부에서는 오는 3월 30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성경퀴즈대회를 실시한다. 범위는 요한복음 전체이다.

▶ 장년1부에서는 회원들이 더욱 성령 충만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는 3월 30일에 찬송가부르기대회와 5월 25일에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한다.

▶ 소망부에서는 오늘(3월 23일) 조별 찬송가부르기대회를 실시한다.

▶ 에바다부에서는 봉사자를 찾고 있다.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은 이강근 선생님께 신청하면 된다.

▶ 새가족부에서는 오는 4월 13일 십계명 암송대회를 실시한다.

▶ 교정전도회에서는 전국 각교도소에 보낼 신앙 서적을 4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재소자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청년교구 전체 모임

청년교구(교구장 서동석 장로)에서는 교구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교구를 소개하며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참석 대상:

- 단독세대로 구성된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회원
- 일시: 4월 4일(금) 오후 7시
- 장소: 갈릴리홀

영어교육부 성극

‘부활하신 주님’ He Has Risen

3월 30일(부활주일) 복지관 지하 1층에서

영어교육부에서는 부활절을 맞아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시려고 겪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고난과 승리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성극을 준비하여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바라고 있다.

3월 30일(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개최될 이 성극은 교사 A 라비나 극본으로 He Has Risen이라는 제목으로 Young adult 중심으로 초등부, 중고등부, 성인부, 시온찬양대까지 모두 어울려 준비된 것으로 제1막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2막에는 유년시절의 예수님 3막에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예수님, 광야에서의 사탄의 유혹 4막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5막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의 부활을 그리게 되는데, 특히

크로마하프대원 모집

크로마하프대원을 모집한다. 본 교회 등록 세례교인으로 크로마하프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김옥순 집사(☎ 548-6916)에게 연락하면 된다.

부활절 연합예배

30일 오전 5시 30분, 장충체육관에서

부활절을 맞으며 개신교 각교단 연합예배가 3월 30일 오전 5시 30분에 장충체육관에서 모인다.

이 날 예배에는 사회는 김준규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 설교는 김홍도 목사(기감 감동회장), 축도는 박종순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가 각각 하게 된다.

'97 부활절 연합예배위원회에서는 올해의 주제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로 정했고 부제로 '부활의 기쁨을 평화 통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한 동포에게'로 정했다.

부활절 새벽에 교회에까지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은 장충체육관으로 가서 연합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온 교단이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청년1부 가결연세미나

청년1부에서는 4월 4일(금), 5일(토) 충현기도원에서 가결연세미나를 갖는다. 가정, 결혼, 연애에 관한 주제만으로 갖는 이 세미나를 통해 바른 성경적 관점을 가르쳐 이런 문제로 오는 영적, 정신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열린다.

주제 강의, 연결식 강의, 사례 연구, 사례 발표, 기혼자들이 펼치는 연극 '결혼이란 이런 것'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강사는 청년1부 지도 김동석 목사와 청년1부 교사 모두가 참여하여 감당한다.

충현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우리들 주위에는 우리와 함께 나누길 원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커다란 사랑으로 전해집니다.

충현복지관에서는 3월부터 계속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격 대상은 정신지체장애인을 사랑하든 만 18세 이상의 모든 분으로서, 주 1회, 6개월 이상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원 봉사 활동이 가능하며, 활동 내용은 수업 보조(체육, 퀵트, 현장학습, 캠프) 프로그램 진행 보조, 작업 보조, 사무 보조 등입니다.

문의: 충현복지관 지역사회재활과(☎ 562-0548, 564-4885)

부활절 찬양의 밤

임마누엘찬양대, 3월 30일 저녁찬양예배시

구노의 '장엄미사' 연주

1997년도 부활절을 맞으며 부활절 찬양의 밤이 드러진다.

이번 찬양의 밤은 임마누엘찬양대(대장 차신득 장로, 지휘 장기범 집사, 오르간 김운경 집사)가 준비하여 연주하게 된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함께 하기 위해서 열리는 부활절 찬양의 밤이기에 전 성도가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참석하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구원과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임마누엘찬양대는 이 일을 위하여 평일에도 계속 모여 연습을 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부활절 찬양의 밤에서 임마누엘찬양대는 구노의 '장엄미사'를 찬양하게 된다. 곡중 독창은 소프라노 박미애 선생, 테너 지양길 선생, 베이스 최덕식 선생이, 반주는 임마누엘오케스트라가 담당한다.

동서울노회 제51회 정기노회에 각종 고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원하는 분은 다음과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① 목사고시 청원(강도사로서 목사고시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② 강도사고시 청원 ③ 전도사고시 청원 ④ 신학계속 추천 청원(총신대학 및 총신신대원 재학생) ⑤ 목사후보생고시 청원(총신대학 신학과 입학 지원자,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자)
- 제출마감: 3월 26일(수)까지
- 접수 및 문의: 교회 사무국 총무과(☎ 552-8200(402), 563-2339)

봄철 교회당 주변

대청소 교구별 구획도

- 청소기간: 4월 1일~5일(가급적 근거리 교구는 1, 2일로, 원거리 교구는 3, 4일로 날짜를 정하여 봉사위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계획: 교구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실시합니다.
- 청소 도구, 쓰레기 봉투, 어깨띠 등은 동문 경비실 앞에서 분배합니다. (아래 숫자는 교구명)

